

# 日 자쿠초 스님, 휴대폰소설로 ‘下心’

## 해외불교칼럼

9월부터 일본의 천태종 비구니 자쿠초 스님이 휴대폰소설 작가로 등장해 폭넓은 전파행보와 더불어 밝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스님이 특히 세인의 주목을 끄는 까닭은 급년 세수가 86세인데도 1973년 수계하기 전에는 세토우치 하루미라는 저명문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이다. 동경여자대학 문학부 출신인 스님은 1956년에 첫 작품 <여대생 곡예령>으로 신조동인잡지상을 받으며 등단해 애정소설 ‘꽃술’ 등으로 퇴폐적 외설 작가 그리고 과감한 전위문학가라는 평을 함께 받았다. 이후 동경신문에 ‘여자의 바다’를 연재하고 <여름의 끝자락>으로 1963년 여류문학상을 수상하며 정통문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또 스님이 현대일본어로 번역한 11세기 불후의 고전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는 이미 200만부 넘게 팔린 스테디셀러다. 스님은 이 같은 화려한 문단경력에 못잖은 애정력력과 결혼 파탄 등 만행(萬行)을 두루 겪은 뒤인 51세에 삭발 수계했다. 이후 천태사 주지와

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전법소설 <석가모니> 등 창작활동을 계속해 1992년 <꽃에게 물어봐>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하고 1997년에는 문화공로자로 선정되며 2006년도 국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그런 이력을 지닌 스님이 전혀 뜻밖에도 아마추어 취향의 휴대폰소설 <내일의 무지개>를 발표한 것이다. 스님은 유려한 필치로 부모의 이혼에 괴로워하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또 자신의 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가정문제를 토대로 혼란과 고민에 빠진 청소년과 부모에게 따스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도 전한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소설은 일본의 최신문화사조로서 문자메시지형식의 짧은 문장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파격적 문학 장르다. 사회 일각에서는 만화 등 인터넷문화에 익숙한 세대에게 직접 만들고 나눠 읽는 혁신적 문화트렌드라 호평한다. 이와 달리, 기성문단과 비평가들은 문학적 가치가 희박한 휴대폰소설이 저질속성문학의 대량생산을 파탄 등 만행(萬行)을 두루 겪은 뒤인 51세에 삭발 수계했다. 이후 천태사 주지와

행이라 혹평한다. 그 논란의 와중에 팔순의 자쿠초 스님은 스스로 휴대폰소설가로 등장해 신세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휴대폰소설은 대체로 여중·고생 등이 같은 또래의 독자들 대상으로 쓴 사랑 이야기나 주류다. 따라서 즐거위가 처지고 등장인물이 대개 여중·고생인 통속적 읽을거리로서 구성과 전개가 다소 서투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생활상과 사회적 배경 등이 바로 오늘의 현실처럼 다가오는 사실감과 박진감이 넘치며, 작가와 독자 사이에 짙은 공감대와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책자로 출판된 휴대폰소설은 작년 일본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3위까지 지를 휩쓸었다. <사랑 하늘>은 약 200만부, 또 21세의 아가씨가 시간제 일터로 오가는 차에서 문자메시지로 쓴 <만일 대가>는 40만부 이상 팔리는 등 판매상위 10위 중 5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자쿠초 스님이 휴대폰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뭘까?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평안한 ‘공유’의 공간’을 보시하자는 사려 깊은 자비행이다. 공유의 공간이란 누가 누굴 가르치는 근엄한 일방훈시(一方訓示)가 아니라 모두 스승이며 제자가 되는

즐거움 상호학습(相互學習)의 장이다. 스님의 그런 공동체식이 설득력과 친근감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스님은 대중전법과 증생구제를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또 낮춰간다. 일본고전문학을 번역할 만치 특출한 능력과 식견을 지닌 스님이지만 굳이 복잡한 언사와 난해한 어투로써 자기과시를 하려들지 않는다. 스님은 일찍이 붓다세존께서 그러하셨듯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로 지금 너와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눈다. 그것이 곧 하심(下心)이 아닐까? 사실상 스님은 휴대폰소설이란 신세대매체를 통해 ‘당면 현실’에 대한 다중카운슬링을 하고 있다. ‘내일의 무지개’의 행간에는 스님이 청소년은 물론 좌절과 실의의 늪에 빠진 가장과 퇴직자 등 기성세대에게 보내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웃음이 담겨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청춘이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the state of mind)를 뜻합니다.”

이틀 몸소 입증하시는 세토우치 자쿠초 스님께 합장삼배를 올린다.

편역·성휴 스님  
출처: NYT, BTN 기사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④

# “카르마 거울로 선악 비추리라”

너른 지식을 쌓고 고운 감성을 그려가는 청소년기에 읽는 책 한권이 때론 그 사람의 인생행로를 비추는 등대가 된다. 브루스 조엘 루빈에게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는 20대에 심취한 그 책을 통해 삶에 눈을 뜨고 문학적 영감을 얻는다.

그가 거저던 히피세대는 불교의 미국식 버전인 비트닉 부티즘이 극히 불안정한 기독교가치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등장한 때다. 그 사회적 혼란상 가운데 냉철한 자아를 추구하던 그는 <사자의 서>를 통해 한 가닥의 빛줄기를 본다. 그 대가(代價)는 생(生)과 사(死)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동(動)과 정(靜)이 서로의 앞뒤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혼돈 속의 질서, 질

크게 전이돼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여기서 감독 브루스 루빈은 행복과 불행 역시 서로의 앞뒤 모습이며 생사(生死)가 그러하듯 하나의 연속선상(continuum)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밝은 이내 태어난 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고 아가에게 꼭 해주고픈 얘기도 남긴다. 착하고 영특한 아내 게일은 그의 슬픈 과거를 토닥이며 아픔을 달래준다.

비로소 그는 암울한 유년기에 대한 ‘자기 저주’가 암을 키워왔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와 가족의 고통에 다시 안긴다. 새 생명에게는 삶의 지혜를 남기고 아내에게는 감사하며 아버지와 형제와 화해

## 일생 함께 한 동반자 티베트 ‘사자의 서’

### 삶·죽음 다룬 영화 ‘내 인생’으로 감독 데뷔

서 속의 혼돈이란 이중역설(double paradox), 그 이중역설의 긍정과 수용(acceptance)이 불교철학의 요체임을 배워간다. 그는 이를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접목하고 영화라는 영상매체에 편승하여 대중에게 전달해왔다.

‘사랑과 영혼’에 비해 흥행은 뒤처지나 그의 또 다른 역작인 ‘야곱의 계단’ 역시 초현실적인 판타지 작품이다. 인간의 영성을 파고드는 그의 탐구적 자세는 1991년 발표한 ‘기만’이란 사이코드라마로 이어진다.

1993년 마침내 그는 나이 오십에 자신의 각본을 쓰고 제작한 ‘내 인생’이란 영화에서 감독으로 데뷔한다. 이 영화도 그가 그동안 천착해온 주요 테마 삶과 죽음을 다룬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주인공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비디오로 남기는 최후성(儼滅性) 드라마다.

초라한 가정형편과 아버지의 신분 등으로 심한 갈등과 수치심을 지닌 주인공 밥은 집을 뛰쳐나온다. 낯다른 집념으로 광고업자로서 대성공을 거둔 그는 교양이 있고 세련된 미인 게일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의 열등감은 이미 체질화돼 아내에게 작은 너그로움마저 베풀지 못한다.

임신한 그녀가 뱃속에 행복의 씨앗을 고이 키우고 있을 때 그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성름 다가온다. 그의 신장암이

를 한 것이다.

작가 브루스 루빈은 주인공이 남은 삶을 정리해가는 단계마다 <사자의 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나니, 그대는 울겨주고 애타가 바라며 매달리는 바를 다 털어낼지라. 모두가 헛것이자 눈속임이니, 그대가 이를 깨우쳐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신대, 이제 떠나는 다른 길에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떠날 때가 되면 고운 빛을 추슬러 고이 떠나라는 얘기가. 죽음을 눈앞에 둔 막판까지 탐욕과 심통 따위의 추한 작태를 보여서야 되겠냐? 하는 충고의 말씀이기도하다. 그런 까닭에, 죽은 자를 위한 <사자의 서>가 오히려 산 자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How-To book of Life)’ 또는 ‘대해탈의 서(The Book Of Great Liberation)’라 말하기도 한다. 그럼 거기 서너 줄을 더 소개하며 할리우드의 전범사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의 이야기를 이만 마친다.

‘그대와 함께 태어난 선한 영혼이 하얀 조약돌로 그대의 선행을 하나둘 세며, 그대와 함께 태어난 악한 영혼이 검은 조약돌로 그대의 악행을 하나둘 셀터라. 그에 심히 놀라고 무서워 악을 행하지 않았다 거짓을 고하지 말라. 명부(冥府)의 상제께서는 카르마의 거울로 그대의 선과 악을 낱알이 비추시리라.’

-끝-

성휴 스님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Is that so?” “아, 그래요?”



A young girl got pregnant. Her angry father asked who the father was. The embarrassed girl pointed the meditation master being respected for a pure life. When the father confronted him with her accusation, he simply replied “Is that so?” When the baby was born, the father brought it to him, who now got ridiculed by the whole village. “You should take care of it!” “Is that so?” The master said calmly and accepted it. For months he took good care of it until the daughter could no longer withstand her lie. She confessed that the real father was a young man whom she had tried to protect. The father rushed to the master, “Venerable, could you accept my apologies and return the baby?” “Is that so?” the master said as he handed it to him.

예쁜 아가씨가 딸려 애를 가졌다. 열이 뻘뻘한 아버지가 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당황한 딸은 정갈한 생활로 존경받는 한 참선승을 지목했다. 딸의 말을 곧이들은 아버지가 마구 다그치자 스승은 그저 “아, 그래요?”라고 말했다.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이제 동네방네 비웃음거리가 되고만 그를 다시 찾아갔다. “아빠, 당신이 키우라고, 아!” “아, 그래요?” 그는 나직이 말하며 아기를 받아 몇 달 간 돌보았다. 그 동안 자신의 거짓말을 더 견딜 수 없게 된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아기의 친아버진 총각이 행여 다칠까봐 돌려달라고 털어냈다. 한결같은 스승을 찾아가 아버지께 말했다. “어르신, 제 잘못을 부디 용서하시고 아기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는 아기를 건네왔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 티베트 시즌 행사 다채 꽃 바트 동아시아박물관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영국 바트의 동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티베트 시즌’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의 타시랑 파에서 파견된 여덟 라마의 만다라 제작시연행사는 영국 불자 50여 명도 동참했다.

동 박물관 큐레이터 미셸 리는 완성된 만다라를 해체해 강물에 버리는 행사를 겸한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일주일간의 소중한 제작시연행사를 통해 니르바나의 복락을 누리고 상호교감을 넓혀가기 바란다’고 치사했다.

현재 동 박물관에 함께 출품된 몽골리아의 탕화 및 소형 불상 등 불교문화재는 12월말까지 계속 전시된다.

출처: TIB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 양화사 건강원

## 근 자원봉사의 집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 부인성 질환)(아토피, 피부질환)(신경통, 관절질환)(디스크, 혈압질환)(불치, 난치성질환)(회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 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농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화사  
근 자원봉사의 집